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	**보도자료**	http://www.mke.go.kr
'10년 12월 3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자료문의 : 철강화학과 이승우 과장, 이강진 사무관(2110-5644)		

"합성수지 1개월 가격예시제" 시행 한달만에 중소 플라스틱업체의 93%까지 확산

□ 지식경제부(최경환 장관)는 지난 9.29일 「대·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」에서 발표한 **합성수지 "1개월 가격예시제"**에 대한 **이행실적**을 점검한 결과

○ LG화학, 호남석유화학 등 석유화학 기업들로부터 합성수지를 공급받는 **중소 플라스틱업체 3,285개사 가운데 약 93%에 해당하는 3,053개 업체가** 서면으로 가격을 통보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음

* (**1개월 가격예시제**) 석유화학기업들로 하여금 1개월 후에 적용할 합성수지 공급가격을 사전에 서면으로 플라스틱 업체에 확정하여 통보함으로써 이를 통해 플라스틱 업체는 원료가 변동분을 적기에 제품가에 반영할 수 있음

* 석유화학기업: LG화학, 호남석유화학, 삼성토탈, 한화케미칼, 대한유화, 대림산업, 효성, 폴리미래, SK에너지, GS칼텍스 등 10개사

○ 한편, **약 7%에 해당하는 232개사는** 일부 석유화학사 영업직원들의 이해부족으로 관행으로 굳어져왔던 **구두통보**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**12월부터는 서면에 의한 가격통지로 전면 전환**할 계획이라고 밝힘

<11월중 합성수지 공급사의 1개월 가격예시제 시행결과>

구분	총거래 업체수	가격예시제		비고(용도)
		서면통보	미이행	
PE (폴리에틸렌)	2,200개	**2,068개** (94.0%)	132개 (6.0%)	농/공업용 필름, 쓰레기봉투 등
PP (폴리프로필렌)	1,085개	**985개** (90.9%)	100개 (9.1%)	과자봉지, 내외장재 등
합 계	3,285개	**3,053개** (92.9%)	232개 (7.1%)	

* 거래업체수는 플라스틱업체가 다수의 석유화학업체와 복수거래로 인해 중복 계상됨

□ 1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"**1개월 가격예시제**"는 합성수지 시장에서 공급업체의 **구두 가격통지, 공급후 가격확정** 등 거래관행에 대해 **중소 플라스틱 업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사항으로**

○ 지경부는 지난 9.29일 「대·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」을 통해 합성수지 **"1개월 가격예시제" 시범실시 계획을 마련**하고, 관련 협회, 조합, 공정위와의 협의를 거쳐 **11월부터 전면 시행** 중임

□ 한편, 지경부는 가격예시제로 **중소플라스틱업계의 원료수급, 최종납품가 반영 등 경영활동에 다소나마 도움**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

○ 향후, "1개월 가격예시제"가 합성수지 거래시장에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**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**하고,

○ PVC, PS 등으로 **가격예시제 대상품목도**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음

* PVC(폴리비닐클로라이드) : 배관용파이프, 자동차부품, 포장재, 완구류 등
* PS(폴리스티렌) : 가전제품 케이스, 음료용기, 일회용용기 등

○ 또한 **"석유화학-플라스틱 업계간 협의체"**를 구성하여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동반성장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임